

베트남전쟁의 승과 패(회고)

金 鎭 渲

(예비역 육군대장)

1. 서 론
2. 털보 산적두목
3. 하늘과 땅
4. 한국군,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군
5. 북베트남 그 투사적 정신의 실례
6. 전쟁의 승과 패
7. 전쟁의 후일담

1. 서 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성과 및 교훈은 이미 30여 년이 지나 공식적인 분석이 끝난 상태에 있음으로 오늘의 회고는 참전자로서 그 당시와 지금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회고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참전용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

난 단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개인의 사고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참전했던 경험을 소재로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을 때 중앙일보에서 거두절미하고 “김진선 장군 베트남전 참전 참회의 글을 쓰다”라고 게재하여 참전용사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내가 쓴 글 전체가 아니고 단지 하나의 구절일 뿐이었다.

내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지 20년이 지난 후 사단장 시절 베트남전쟁 당시 나의 부하들을 생각하며 우리와 사투를 벌였던 베트콩에 대하여 쓴 내용이였다. 내용은 베트남전쟁에서 단독으로 8시간 동안 우리 중대와 맞서서 신체가 토막이 날 때까지 항전하던 베트콩 용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는 구절이었다.

참전당시 나의 계급은 대위였으며, 직책은 중대장이었다. 그 후 20년 후 사단장이 되어 깊은 계곡을 거닐고 있을 때 문득 그 베트콩 전사가 항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자기 나라를 위해 몸이 토막이 날 때까지 사투를 벌렸다는데 대하여 깊은 연민의 정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눈물은 아무리 적이었더라도 그 베트콩 전사의 성명과 전사했던 장소를 기록해 표시하고 후히 장사를 지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승리감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다.

나는 계곡에서 그 영혼에 대하여 위로의 기도를 했고 그의 가슴에서 나왔던 사진 속의 여인을 생각해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여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의 부하들이 그런 정도의 병사들이기를 바랬다. 그 책의 나머지 내용은 객관적인 글이었고 본인이 한국군 장교로써 국가를 위해 참전한 것, 베트남에서 전투한 것 자체를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록한 경험위주 내용은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당시

참전자 전체의 견해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역사에도 야사라는 게 있지 않는가? 또한 공식적인 의견과 달리하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같은 측면에서 필자의 기록은 학술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탈보 산적두목

1969년, 대위 고참으로 한국군 8사단 수색중대장이라는 모두가 갈망하던 보직이 내정되어 있었고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예정된 좋은 보직과 신혼의 단꿈도 버리고 아내와 사별할지도 모르는 베트남전쟁에 지원했다. 아내는 남편이 가는 길에 한마디의 이견도 없었다. 한국이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시절, 장안에 울려 퍼지는 맹호부대 용사들의 노래와 1965년부터 베트남에 참전했던 한국군의 용맹스러운 소식들은 국민들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행진곡으로 들렸고 국민정신을 일깨우는 함성으로 들렸다.

국민들은 국군용사의 파병을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국력이 신장되는 모습에, 베트남전선으로 향하는 열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거웠다. 나는 육사를 졸업한 대위로 이 열렬한 대열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안남미를 먹었던 정서와 야자수 나라에 대한 동경, 한 달에 150불의 해외근무수당에 매력을 느꼈다. 당시 대위의 봉급이 80불 정도였으니까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될 돈이었다.

아내는 이런 분위기에서 참전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군인의 아내로써 모두가 베트남에 갔다왔다고 대화를 하는데 혼자 입을 막고 있을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막연하나마 전쟁에 대한 향수가 깃들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향수가 군인의 본분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죽는다면 이는 어머니에 대한 불효일 것이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임신도 시키지 않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내가 죽는 명분은 아내가 펼쳐갈 꽃다운 미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 민간 대학을 나온 아내에게 국가의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떠나기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헤어졌다.

국가에서 내건 대의명분은 주로 도미노 이론이었고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대한 보답, 국력의 신장, 경제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은 부수적인 명분이었다.

도미노 이론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세아가 공산화된다는 논리로써 이는 미국이 내세운 논리이고 우리는 미국이 6·25전쟁 때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도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6·25때 경험한 공산주의자들의 허구에 찬 선전과 난동을 보았고 생도 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던 철저한 반공정신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이 정도의 명분이면 비록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참전 교육은 받았지만 이 명분으로 다른 교육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내가 참전을 해서 싸울 상대는 공산주의자들이니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고 호찌민은 그들의 총수이므로 악당의 괴수이고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이론에 녹아나는 호찌민의 꼭두각시이므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이러한 결심으로 베트남 전쟁에 자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해서 남들이 선망하던 돈, 훈장 등 개인의 욕망과는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잔인하게, 용감하게 부하들의 선두에 서서 여러 번 생과사를 넘나들며 싸웠다.

부임한지 3일 후부터 한국군 작전 지역이 아닌 남베트남군 작전지역의

북베트남군 기지에까지 들어가 전투를 했다. 본부요원들만을 데리고 침투해 들어간 지역은 나중에 우리 중대가 단독작전을 해 본 결과 북베트남 최전방 1개 중대 이상 병력의 은거지였다. 밤중에 은밀히 침투하여 그 중심의 작은 봉오리에 올라가 있자 베트콩의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래로 옆으로 베트콩들은 팬티에 작은 배낭을 메고 7~8명 단위로 수 없이 돌아다녔다. 나는 중대에 남아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소대장들에게 베트콩이 바글바글하다고 무전을 날렸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전투의 첫 단계부터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내가 판단할 때 무기와 장비, 훈련수준에서 우리와는 상대도 안 된다는 자신감이었고 베트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전임자에게 인수를 받을 때 작전지역에서 베트콩이 나타났을 때 모두는 옆드려 총을 쏘았고 나는 서서 이를 구경했다. 이때 도망가는 베트콩의 모습이 나에게 베트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이날 밤 무전으로 지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3개 소대를 중대장을 중심으로 투입하였다. 새벽이 되어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 소대들이 아직도 내가 지정한 지형을 찾지 못하고 야지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첫날부터 베트콩에게 발각되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이 되어 마구 욕을 해대며 숲에 숨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 날 밤부터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적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소대에 알리고 소대는 이들과 교전하여 적 9명을 사살했다. 이 전투에서부터 맹호 1연대 11중대장으로써 당시 1연대 전과의 2/3를 올릴 정도의 용맹한 중대장이었다. 부하들이 가끔 중대장이 베트콩에게 현상금이 걸린 벽보를 가지고 올 정도로 베트콩에게 나는 철천지원수와 같은 존재였다.

내가 귀국하기 전까지 우리 중대가 사살하여 철조망 주변에 묻은 북베트남 시체는 72구가 된다. 이 숫자는 부상자를 가정한다면 거의 200명에 달하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우리 중대에 희생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훗날 베트남 전쟁을 현장에서 조사한 조사위원인 육사 선배의 전언에 의하면 참

전 후반부에 가장 열심히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훈장을 받지 못한 장교가 김 대위라며 나를 위로하였으나 귀국하여 이 말을 듣고도 훈장에 대하여는 섭섭함이 없었다. 당시 부하들은 응분의 훈장을 탔고 나는 단지 군인답게 거짓보고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구차한 소리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떳떳한 중대장으로 보인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차피 많은 훈장은 전투를 잘한 사람도 타지만 많은 부분이 전투를 안 한 사람들이나 채수 좋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도 현지에서 들었으니까!

1년 후 귀국할 때 할당된 2개의 박스를 채우지 못했고 그 흔한 외제 TV나 녹음기, 냉장고를 단 하나도 사지 않고 귀국했다. 내가 가지고 온 박스에는 베트콩 브라자, 팬티, 금이빨, 나의 옆에 떨어졌던 57mm 무반동총 포탄 파편, 내 차를 폭파하려고 도로에 묻었던 것을 파낸 대전차지뢰, 알콜에 담아온 상징물들, 아내와 나누었던 364통의 편지 이런 것들뿐이었다. 베트남에서 박스가 들어오면 몰려드는 장사 아주머니들이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만 쏟아져 나오는 박스는 처음이라며 혀를 차며 갔다고 한다.

중대장 근무 1년 동안 결정적인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넘기고 살아남았다. 아마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보다는 더 많은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아군 4.2인치 낙탄이 내 머리 옆을 스쳐 바로 발아래 떨어졌는데도 불발이 되어 살았으니까—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몇 번의 고비는 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다고 단언할만한 일들이었다.

임기 1년간 이 정도로 전투를 치렀으면 그냥 귀국을 해도 충분했는데 나는 귀국 2일 전일까지 최후의 결전에 참가하고 귀국하겠다고 출동을 준비했다. 그 동안 북괴군 4명이 베트콩 400명을 훈련시켜 한국군 1개 중대를 몰살시키려 한다는 첩보가 계속 접수되었고, 몰살시킬 한국군 중대가 11중대라는 내용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들과 마지막 결전을 하기로 하고 대대장에게 건의했다. 대대장은 네가 죽으면 네 마누라를 어찌 보느냐며 한사코 만류를 했으나

끝내 결전을 주장하여 연대장에게 허락을 받고 한 밤중에 가슴까지 찡는 늪을 건너 아노이 계곡으로 출동했다. 캄캄한 밤중에 가슴까지 찡는 늪을 건너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깊은 늪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으면 우리는 전멸이다. 나는 중대가 칠혹같이 어두운 밤중에 늪을 건널 때 나는 철벽거리는 소리에 기절할 것 같았다. 마치 전쟁에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이었다. 이처럼 부임 3일 후부터 귀국하는 전날까지 전투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갖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중대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따라서 병사들은 앞장설 자리에 서로 앞장선다고 다투고, 중대장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어느 중대보다도 용감한 병사들로 싸웠다. 내가 훈시를 하면서 베트콩이 나의 배에 총을 쏘 때 내가 배에 힘을 주면 총알이 튀어나간다고 농담을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래서 내 별명은 털보 산적두목이었다. 보통 1개 분대가 매복중일 때 100여 명의 적이 지나가면 엎드려 피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분대는 매복 중 남베트남군 정규군 1개 중대가 지나갈 때 이를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전투를 벌일 정도였다. 이런 용맹과 담백함, 사선에서 유머와 서로의 사랑으로 뭉쳐 싸운 결과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중대원들은 호림회라는 이름을 매년 2번씩 기억에서 되살려내고 있다.

3. 하늘과 땅

베트남전쟁에 참전한지 25년 후인 1994년, “한·베트남 친선우호협회”의 일원으로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문화원 주최 학술토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물론 갈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기 전날까지 무슨 이유인지 입국이 된다 안된다를 반복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부터 실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긴장을 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싸워 -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 북베트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점과 잔인하게 싸운 점 때문에 하노이 학살토의에 참가하기 전 신분을 숨기는 문제로 고심도 했다. 또한 참전했던 나라에 간다는 기대감도 남달리 많이 있었다. 우리가 내린 곳은 하노이 공항, 공항의 짐을 내리는 곳은 겨우 15m 남짓한 작은 벨트 하나였고 하노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보다는 소떼들이 더 많이 다니는 때였다. 마침 태풍이 지나간 뒤라 하노이의 밤은 어둠과 적막의 도시였다. 마치 유령이 지나간 마을 같았다.

나는 그곳에서 25년 전의 참전자로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이런 정도의 공항과 고속도로에 소 떼가 다니는 약소국이 1954년, 강대국인 프랑스와 싸워서 디엔비엔푸에서 항복을 받고 또 세계최강의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이요 내가 가졌던 북베트남에 대한 관점이 거꾸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나는 2일째 호찌민 기념관에서 호찌민이라는 한 인간의 드라마를 보았고 전쟁기념관에서는 디엔비엔푸 전투 실상을 화면으로 보았다.

프랑스는 1885년 텐진조약에 의하여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한 후 100년 가까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통치했다. 그들은 자원을 수탈하고 프랑스 인이 6천피아스타의 월급을 받을 때 베트남인은 겨우 49피아스타를 받는 정도의 잔인한 식민통치를 했다. 프랑스는 베트남인의 민족 저항이 강해지자 베트남을 3등분하여 통치하려 했다. 이 때문에 호찌민은 유서에서 “시체를 3등분하여 남부 중부 북부에 골고루 뿌려라”라고 한 것이다.

베트남인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가 군대를 파병하여 석권하는데 30년이 걸렸고 그들은 80년간 통치하는데 3만5천명의 전사자와 4만8천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베트남이 프랑스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러자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프랑스군을 무장해제 시켜 구금해버렸다. 베트남인은 다시 4년 간 일본군에 저항하여 싸워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스탈린은 장개석에게 베트남을 지배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베트남은 민족저항정신이 강하여 도저히 지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를 거절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호찌민은 재빨리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흐름이었던 시대라 강대국은 베트남의 독립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포츠담 선언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는 다시 군대를 보내 베트남을 통치하려 했다.

그때 프랑스는 베트남의 호찌민에게 베트남에게 외교·국방·행정 등의 자주권을 주어 자치연방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여 호찌민이 이를 수락하고 자치연방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해 한창 준비 중일 때 프랑스는 갑자기 군대를 파견하여 베트남을 다시 점령하고 말았다. 프랑스의 이러한 배신에 대하여 격분한 호찌민은 대불항전을 선언했다. “전국의 동포들이여 우리는 평화를 원했기에 양보를 했다. 그러나 양보할수록 프랑스는 배신감만 안겨주었다.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나 호찌민이 대불항전을 선언할 때 북베트남의 병력은 프랑스와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9년 후 호찌민의 베트남은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베트남저항군은 디엔비엔푸를 공격하기 위하여 100여 명이 포 하나를 분해하여 산 정상으로 은밀히 끌고 올라가고 보병은 쾅이와 호미로 땅굴을 파고 프랑스군 30m 안으로 접근하여 60일간 수류탄 투척거리 내에서 끈질긴 전투를 하였다. 전국에 흩어져 게릴라전을 하던 전사들은 5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장비를 지고 디엔비엔푸로 몰려오고 베트남은 80년 간 참아온 모든 것을 이 한판의 결전에 운명을 걸었다. 포를 분해하여 디엔비엔푸 공항이 직접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들의 의지와 호미로 땅굴을 파고 적진에 가까이 가는 그들의 의지에 감복하여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군은 항공력과 포병이 우세함으로 이들은 전투준비에 절대적인 비밀이 필요했고 결국 수류탄 투척 거리에

접근하여야만 프랑스군이 항공력과 포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2,293명이 전사하고 5,734명이 부상했으며 1만1천명이 생포되었다. 이에 비하여 베트남군은 8천명이 전사했다. 이 전투로 프랑스군은 항복을 하고 결국 1954년 프랑스, 미국, 베트남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네바협약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약속했다. 실로 베트남인에게는 프랑스에 80년간 항전한 결과로 얻은 값진 선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 독립을 누린 적은 있지만 베트남인에게는 사실상 2천년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최고의 승리였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강대국에게 군사적으로 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진, 한, 수, 당, 명, 청, 모두 베트남을 침략했으나 결과적으로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물러났고 몽고군도 3차례 침략을 했으나 베트남의 게릴라전에 패하여 돌아났다. 명나라 군 20만도 청나라 군 20만도 모두 베트남 안에서 괴멸되어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디엔비엔푸 전투로 현대식 장비를 갖춘 제국주의의 본산이었던 프랑스도 군사적으로 패하여 항복을 한 것이다.

호찌민은 독립을 약속 받고 주석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바트계획에 의하여 베트남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들은 제네바협약을 무시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던 응오딘지엠을 보내어 17도 이남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에 호찌민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끼고 대불항전의 연장선상에서 대미항전을 선언했다. “미국과 괴뢰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베트남 만세 베트남 민족 만세.”

그래서 베트남인은 남부인이나 북부인이나 대불항전의 연장에서 미국과 싸웠고 모두가 그들의 역사에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일기에 ‘베트콩은 불쌍하다! 못 먹고 뼈쩍 마른 것들이 무슨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싸우는지, 저들이 강대국과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참 불쌍하다’고 기록된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들은 불쌍한 것들이 아니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한 전사들이었다.

나는 호찌민 기념관에서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인간됨됨이에 감탄하며 결국 이러한 지도력이 미국과 싸워 이기고, 120만의 중무장한 남베트남군을 45일 만에 격파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도 증오했던 적지에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지도자상을 본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과 희생, 봉사와 겸손을 가진 지도자를 보았다.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국민에게 은혜를 남긴 지도자를 보았다. 사랑, 희생, 봉사, 겸손 그리고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남기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는 주석이 된 후에 인민이 헐벗고 있는데 호화로운 주석궁에서 살 수 없다며 주석궁을 수리하는 전기공의 집에서 살았다. 주석궁은 겨우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옥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었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진솔한 마음에 감복했다. 각료회의도 연못가의 누각에서 했다. 누각의 안 쪽으로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의자가 둘레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어린이들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전쟁 중이지만 그만큼 그의 어린애 같은 순수함이 인식되었다.

그는 유언을 3년간이나 썼다. 왜냐하면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4년을 더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라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매년 빨간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에 빨간색 작은 볼펜 글씨로 유서를 고쳐 쓴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하여 동상을 세우지 말라.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화장하여 3등분해서 베트남의 남부, 중부, 북부에 골고루 뿌려라. 자유와 독립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 미군과 괴뢰정권이 사라질 때까지 싸워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의 유서는 오직 베트남과 베트남 민족을 위하는 것뿐이지 생전에 돈 한 푼 챙긴 것도 없고 재산을 은닉한 것도 없고 유산도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그가 쓰던 모자와 지팡이 그리고 유서, 벼루와 묵, 외국에서 선물로 준 기념물뿐이었다. 그는 애인이 있었으나 베트남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79

세의 총각으로 오직 민족을 위하여 봉사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북한의 김일성과 호찌민은 남북으로 갈린 것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방전쟁을 하는 것이나 모든 여건이 같았으나 호찌민은 성공했고 김일성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결국 남침이라는 역사적 인식이 남반부 적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판단해 '6·25는 북침'이라는 바이러스를 남반부에 40년간 투입했다. 그러나 호찌민과 김일성은 인간적 본질이 하늘과 땅이며 사상도 다르고 지도력도 근본이 다르다.

호찌민은 자기를 위하여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살아서 이미 3만5천개의 동상을 세우고 매일 그것에 참배하게 하고 닭게 하며 김일성은 대원수로 금색 왕별, 김정일은 원수로 은색 왕별, 그의 아들 김정남은 24세에 대장이 되어 그의 가게를 모두 영웅으로 만들었다. 호찌민은 전기공의 집에서 살았지만 김일성은 4만평의 궁정에서 살고 3천명의 기쁨조와 즐기고 인민이 3백만 명이나 굶어죽는데도 그의 시체를 관리하는데만 4억불을 썼다.

그러나 호찌민은 베트남 민족에게 자기는 똑같은 인민임을 생활에서 입증했다. 호찌민은 민족주의자였지만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요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민족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주체사상 앞에 민족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못했다. 호찌민 기념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서서 참배했다. 내가 문화원장에게 왜 호찌민의 유언대로 하지 않고 시체를 보관했느냐고 묻자 그는 남쪽의 인민들이 스스로 호찌민을 보기 위하여 저렇게 몰려드는데 다 보고 나면 유언대로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처럼 그가 죽었을 때 통곡조를 편성하여 '울어라'하다가 어느 날 '그쳐라'하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나는 호찌민이 공산당의 괴수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상기해 보았다. 25년 후 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호찌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진정으로 소망했다.

학술토의 마지막날 만찬장소에서 나는 베트남에 참전했던 대위였고 지금은 예비역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고 고백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내심으로는 호찌민에 대한 고백이었다.

참석자 모두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는 이들이 갑자기 적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예비역 대장이라는데 대한 예우의 표시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권이 군대를 적대시하고 장군의 위상을 깎아 내리기에 열을 올리던 때라 오히려 이곳에서 비록 적이었지만 장군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잘살지는 못해도 큰 나라라고 생각되었다. 나의 말이 끝나자 베트남의 발표자였던 한 사람이 자기가 남부 정글에서 싸울 때 어렵고 쓸쓸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라며 열창을 시작하자 참석자 모두는 그를 따라 합창을 했다. 합창은 만찬장소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렁찼다. 나는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 몰라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들이 합창을 끝낸 후 나는 어색함을 달래기 위하여 답례로 한국 참석자들에게 제의하여 만남이라는 노래를 합창하자고 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의 필연이었어” 나는 통역에게 우연이었어라는 가사를 필연이었어로 바꾸게 하여 우리 만남이 필연임을 강조했다. 노래가 끝나자 베트남 발표자가 다시 일어나 나에게 우리는 전우라며 팔을 걸치고 건배를 하자고 하여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우리는 팔을 끼고 건배를 하며 전우임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전우라는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귀국하자마자 참전당시의 생각과 하노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베트남의 역사와 전쟁사를 연구하게 되었다. 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쟁에 참가했고 내 계획하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전한 전쟁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에 갔다 와서 그들의 대단한 역사를 알기 위하여 로마인 이야기, 퀴바디스를 읽은 것처럼.

2년 후 나의 졸저인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이라는 책은 베트남 외무부 차관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하노이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초청되어 다시 하노이에 갔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디엔비엔푸 전투에 참가했던 장군은 국회의원인 자기 아들을 시켜 책에 사인을 받아오라고까지 했다.

그때 나는 재향군인회에 초청되어 노병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깊은 주름살이 있고 머리가 하얗게 시었으며 그들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할 때 모두 말의 말미에는 하나같이 입을 꼭꼭 다물었다. 프랑스에 항전하여 싸운 이래 그 뒤로 대미항전을 하면서 정글에서 고생을 할 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그들이 부하들에게 결의에 찬 결심을 설명할 때 입을 꼭꼭 다물었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퇴색한 군복을 입고 있는 그들의 얼굴 전체에는 많은 세월의 고달팠던 여정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대불항전에서부터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정글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싸우던 모습이 이곳에 있는 전우들의 얼굴에서 읽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의 말미에 입을 하나같이 꼭꼭 다무는 것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결의에 찼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했고 그들은 힘찬 박수를 내게 보내 주었다.

4. 한국군, 북베트남군 그리고 남베트남군

군인이 전투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철천지원수의 적개심을 수시로 주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개심 없는 군대는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싸우는 군인은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국가목표, 국가의 이념, 처한 환경, 그가 살아갈 영토, 재산, 생명 등과 연계되어 그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베트남에

파병된 부대는 전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충성을 할 대상도 없고 한 치의 땅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절박함도 없고 재산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는 큰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다. 때문에 단지 지휘관과 병사들이 자기들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전과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인접중대장은 베트남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베트남을 보면 피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느냐고 했다. 자기는 베트남을 본 일도 없고 단 한 명의 전과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군인이 싸우러 왔으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면 한국에 있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고 했다. 물론 그가 베트남의 역사를 알고 했던 짓은 아니었다. 피 많은 그의 개성이었다.

이런 전쟁환경에서 사명감을 교육하거나 적개심을 이론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한다 해도 쉽게 수궁이 갈 일이 아니다. 6·25전쟁에 처음 참전한 미군들도 맥아더의 갑작스런 명령에 의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을 때 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 몰라 처음에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했다고 한다. 장교들은 공산당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병사들은 이런 거창한 이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지휘관과 부하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끈끈한 전우애로, 상급자의 사랑으로 뭉쳐 싸운 것이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명의 관계, 죽음의 사슬에 얽혀있는 같은 운명공동체로써, 전승에 대한 희열, 전장에서의 애환 이런 것으로 전투를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전과는 대단한 희열을 주었다. 적을 사살하면 시체를 깔고 앉아 C-레이션을 까먹고 시체를 중대에 끌고 와서는 며칠씩 운동장에 방치해두기도 하였다. 우리 중대는 거의 365일 적의 시체가 중대 연병장에 있었다. 중대원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적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세계의 정복자 징기스칸도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적을 정복하는 것이며 적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라고 말했다. 정복, 승리,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살겠

다고 우루루 달아나는 적의 모습이야말로 정복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베트남이 싸우는 목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내가 전투를 할 때는 베트남을 그저 용감하게 싸우는 게릴라이고 열악한 여건에서 승리의 보장도 없는데 저렇게 잘 싸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이 뭐가 좋아서 그 괴수 호찌민에게 속아서 싸우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 가는 적의 모습에 연민의 정도 있었다. 루시엔강의 언덕에서 우리에게 사살된 적 장교는 죽을 때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그의 가슴에 깔고 바르게 엎드린 자세로 죽었다. 자기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한국군도 죽으라는 의도였다. 그는 그가 죽을 때의 고통을 참고 움직이면 수류탄이 터진다는 생각으로 수류탄이 터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엎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죽을 때의 고통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것인가! 그의 몸은 아직도 온기가 있었다. 선임하사는 수류탄을 발견하고 의심스러워 그의 발에 로프를 묶어 언덕에서 끌어내려 터트리려고 가다가 대인 지뢰를 밟아 발의 앞부분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살된 북베트남 소위는 자기들 기지 내에서 총탄이 무릎에 맞자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큰 소리를 지르며 지휘를 했다. 결국 우리의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의 가방에서는 많은 비밀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베트남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들의 전쟁사를 연구한 후에는 베트남이나 북베트남에 대하여 평가를 다시 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여성들이 저항전쟁에 앞장 선 역사가 있다. 중국의 한나라가 침략했을 때 쑹짜과 쑹니 자매는 저항 전쟁에 앞장을 섰고 그 두 자매의 지도력에 따라 침략한 한나라는 65개 성을 잃고 참패하여 달아났다. 물론 그 자매는 훗날 한나라의 보복공격으로 처참하게 죽었지만 베트남에는 도둑이 들면 여자가 잡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저항도 거셌다. 베트남의 여인들은 모성애와

같은 수준에서 베트남을 보호하려는 전통이 있는 것이다.

베트콩에도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죽을망정 절대로 기밀을 말하지 않는 투사들이었다. 북베트남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각자 국가 목적과 신념화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독립투사였다. 그들은 자율적으로 토의하여 스스로 결정하면 목숨을 바치는 투사들이었다. 일본군의 가미가제가 군림하던 천황의 카리스마에 걸려 무조건 목숨을 던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들은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목적을 알고 싸우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작전을 하기 전에 계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각자 알아서 해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유스러운 민주군대였다. 그들은 그들이 잘 아는 환경, 능력, 지형, 첩보능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목동들의 도움까지 받아 모든 원시적, 재래식수단, 현대적인 전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의 전투의지를 높인 데는 국가 지도자인 호찌민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들의 해방전쟁을 뒷받침하는 공산주의 이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베트남의 역사가 그들에게 각자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투사가 되게 한 것이다. 우리 중대 주둔시 옆에 기지를 두고 있던 남베트남군 중대장은 나에게 자기는 공산주의는 싫지만 호찌민은 존경한다고 하는 말에 호찌민과 싸우기 위해 온 나를 의아스럽게 한 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군 장교가 공산주의는 싫지만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말하면 전투가 되겠는가? 만약에 한국이 이런 현상이라면 미군이 물러가면 바로 북의 집단에 접수된다는 뜻이 된다. 북베트남은 베트남의 역사가 만들어낸 애국적 정신으로 무장된 개체이며 지도자 호찌민의 사도들이었다.

남베트남군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응오딘지엠은 집권하자 호찌민이 분배한 농토를 빼앗아 지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전통적인 농경문화에 사는 베트남인으로서는 호찌민이 토지를 분배한 것을 빼앗아 다시 지주에 준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요, 마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정도의 폭행이었다. 농민들은 분개하였으며 해방전선을 편들기 시작했다. 이는 남베트남 정권이 마치 북베트남의 앞잡이로 행동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찌면 이때부터 베트남이 망할 때까지 대통령의 고문으로 일했던 한 ‘냐’라는 육군 소장의 조언일지도 모른다. 그는 북베트남이 파견한 첩자였고 남부베트남의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작전은 모두 북베트남군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거꾸로 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 결과 최초에 32명으로 출범한 민족해방전선은 2년 후 농민의 80%의 지지를 얻고 결국 남부베트남이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에는 ‘냐’와 같은 북의 첩자가 정부 내에 없을까?

응오딘지엠은 전쟁이라는 이유로 갖은 독재를 자행했다. 지엠은 가톨릭 정권으로 국민의 10%밖에 안 되는 가톨릭세력으로 정권을 잡아 국민의 86%가 되는 불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 불교도의 탄압은 남부베트남이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들은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법을 만들어 불교도들을 포함하여 5만명을 처형하였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벌린 아침의 예를 들어보면 지엠이 농장을 시찰할 때 농민으로 하여금 오렌지나무를 옮겨 심어놓고 그가 돌아가면 모든 오렌지나무가 말라죽는 그런 식의 전시행정을 펼쳤다. 관리들은 농민을 착취하고 부를 누렸다. 내가 주둔하고 있던 인접 푸캇군의 간부들까지도 여자들을 트럭으로 싣고 다니며 포주노릇을 했다. 사이공에서는 미국에서 무전기가 운반되어 오면 2만대씩 팔아먹고 심지어 군함까지도 다음날 어디론가 팔려갔다. 원조 자금은 모두 탐관오리들의 것이었다.

남부에서는 1964년부터 1965년까지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마치 화투판에서 화투를 엮는 것처럼 아주 쉽게 쿠데타가 일어났다. 심지어는 북베트남이 사이공 근교에까지 진격했는데에도 응옌카오키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을 돕는 사람들의 집단이었던 셈이었다.

미군은 철수할 때 80억불(당시 한국군 국방비의 40배)이라는 막대한 돈을

일시에 투입하여 남베트남군을 세계 제4위의 군대를 만들어 놓았다. 최신형 항공기, 탱크, 포 이런 것들로 미국은 남베트남군에게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북베트남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리평화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정신적 중심이나 확고한 의지도 없던 남베트남군은 미군이 철수하자 처음에는 잠잠했지만 차차 사공을 잃은 배가되어 풍랑에 떠다니는 난파선이 되기 시작했다.

북베트남군은 미군의 재개입을 염려하여 후에서에서 가벼운 전투를 시작해 보았다. 그리고는 중부고원에서 1개 대대가 시험기동해 보았다. 그런데 후에서에서 6천명이 몰살했다는 소문과 함께 중부를 지키던 2군단 1군단이 북베트남 1개 대대의 기동에 놀라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장교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반대로 생각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병사들은 철수하여 다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철수가 아니라 붕괴 그 자체였다. 이 2개 군단이 붕괴되는 데는 단지 3일이 걸렸고 1군단장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속부관의 도움을 받아 해상으로 탈출하였다. 다낭에는 겨우 5천명이 집결하였으나 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군인들이었다. 이들은 북베트남군처럼 투사적 의지를 가진 개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베트남은 이때부터 약 15만의 병력으로 총 공격을 개시했다. 이로부터 한달, 사이공 독립궁은 북베트남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포탄이 아니라 심리적 공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북베트남은 공격을 개시하면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너무도 빨리 작전이 진행되고만 것이다. 전쟁 전에 북베트남에서 호찌민과 친분이 가까웠던 남베트남 응옌카오키 수상은 탄식했다. 이렇게 종말이 빨리 올 줄이야!

1975년 4월 30일 10시 20분, 민 대통령은 방송을 통하여 항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병력 13명을 태운 탱크 한 대는 안내하는 여자 베트남공을 따라 독립궁 철문을 부수고 그대로 궁 안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

리고 독립궁 옥상에 베트남기 대신 베트남공기를 달았다. 서로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시작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어떤 전쟁이던 정의의 전쟁임을 주장하고 시작하지만 결론은 점령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벌인 선과 악의 판결은 점령자가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전쟁은 중무장한 120만의 정규군이 공격에 가담한 경무장한 15만 명에게 단지 45일만에 패하는 전례를 세계 전사에 남겼다.

5. 북베트남 그 투사적 정신의 실례

북베트남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무장이 된 군대인지는 실례는 많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1) 사례 1

이것은 8시간 사투를 벌인 베트남—혁명전사(우리는 베트남이라 하고 북베트남에서는 혁명전사라고 함)의 예이다.

전날 밤 루시엔 강변 대나무 숲을 지나던 베트남군은 우리의 크레모아 공격에 3명이 쓰러졌다. 이튿날 전장 정리를 위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우리병사들은 갑자기 날라 온 적의 총탄에 다리를 부상당하였다. 밤에 크레모아에 맞은 적이 살아남아 아군이 수색할 때 사격을 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 베트남군은 강변의 대나무 숲 작은 언덕에서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고 우리는 그를 사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박격포 탄, 57mm 무반동총, 유탄을 수없이 쏘아댄 후 접근하면 다시 사격이 날아오고 이런 대결을 계속하다가 결국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해가 지면 그 곳은 북베트남의 기지 근처이므로 우리는 이 베트콩을 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철수하는 것은 우리 중대의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였다. 기관총을 견고히 거치하고 초과사격을 하는 총탄 밑으로 병사 두 명을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여 1m 앞에서 적을 사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으로 베트콩은 1m 앞에서 자동으로 불을 뿜는 M-16의 총탄에 맞아 작전은 종결되었다. 죽은 시체를 꺼내보니 이미 그 베트콩은 한 팔이 잘려 있었고 온몸은 상처덩어리인 상태였다.

그 베트콩은 크레모아를 맞은 그 날 밤 8시간과 사투를 하는 8시간을 합하여 16시간 동안 행복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와 싸우면 어느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충분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살되어 죽은 그의 가슴에서는 피와 함께 그가 간직하고 다니던 여인의 사진이 나왔다. 그가 살아남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그가 가장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버렸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투사적인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2) 사례 2

우리 중대 300m 옆에는 남베트남군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12시경 그 중대에서 폭음이 들려왔다. 평상시 우리가 약속을 해둔 무전망으로 들어가 민사병을 시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묻자마자 무전기에서는 평소 나와는 가까웠고 나에게 공산당은 싫지만 호찌민을 존경한다던 중대장의 황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이시라, 부이시라” 숨이 넘어가는 소리에 나는 직감적으로 이미 베트콩과 같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북베트남이 베이스에 들어와 수류탄을 투척한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진내사격을 결심하고 민사병으로 하여금 진내사격을 실시한다고 통보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 중대와 같이 주둔한 155mm 포대에 영거리사격을 요청하고 중대의 81mm 60미리, 박격포로 무차별 진내사격을 시작했다. 300m 앞에서 작열하는 155mm 영거리 사격은 밤하늘을 찢는 것 같았고 우리의 박격포는 포열이 달구어질 정도로 불을 뿜었다. 불꽃놀이도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가슴은 죽음의 귀신들이 날뛰는 듯 맹렬한 폭발이 벌어지는 진내사격의 장면에 마구 울렁거렸다. 어느 누가 더 죽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저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이때 북베트남은 나의 관측소로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숙이자 이 무제한의 폭음소리 속에서도 지나가는 총탄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새벽까지 포탄을 퍼부었다. 일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을 구경하면서 이것은 베트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천지가 조용한데 먼동과 함께 아군임을 알리는 수타식 신호탄을 발사하며 우리가 그 중대 쪽으로 접근을 하자 그 중대의 생존자들은 머리를 하나씩 들고 나오면서 생존의 기쁨으로 하늘을 찌르는 괴성을 지르고 철조망을 열고 나와 우리와 함께 모두 열싸안았다. 살아남은 데 대한 기쁨의 함성은 보통의 함성과는 질이 달랐다. 희열의 극치에 달하는 괴성이었다. 아직도 화약냄새는 다 가시지 않았다. 병사들은 서로 열싸안고 나도 달려드는 중대장과 열싸안았다. 중대장은 감온뉴랩(너무 감사해)을 연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기지에 있던 180명의 병력과 간부들의 가족들은 전멸했을 것이다.

이윽고 해가 뜨자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철조망 주변으로 접근하자 그 처참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철조망에는 살점들이 어포처럼 붙어 있고 포복으로 기어들어오다 박격포탄을 직접 등에 맞아 공중분해된 혁명전사들의 시체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6선 철조망 밖에는 부상병을 끌

고 간 피의 흔적과 철수시에 남긴 물건, 압박봉대들이 지난밤의 처참함을 말해 주었다. 이 기지를 공격하던 침투조들과 밖에서 지원하던 지원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잔혹한 진내사격에 처참한 맛을 본 것이다. 그들은 30m 머리 위에서 터지는 155mm 포탄의 찢어지는 듯한 폭음을 경험했고 옆에 떨어지는 우박 같은 박격포탄의 세례를 받았으니 정신인들 제자리에 있었겠는가! 살았어도 귀의 고막은 터졌을 것이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굉음이 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정에서 살아남은 자는 천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며 탄식을 하였다. 나의 일기장에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북한군이 이런 정신으로 덤벼든다면 우리는 백전백패'라고 기록되었다. 아침이 되어 빈딩성장과 남베트남군 간부들이 현장에 오고 우리가 적의 시체를 대충 짝을 맞추어보니 17구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군이 전과의 상징으로 삼는 AK소총은 단 한 자루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C레이션 깡통으로 수류탄을 만들어 20발씩만 휴대하고 침투를 했다. 그들은 한 줄에 10발씩 두 줄로 20개의 수류탄을 담은 바구니를 끈으로 매달아 끌고 들어왔다. 아마도 총을 가지고 철조망을 기어 들어간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고 정신력이 미약한 남베트남군쫘이야 밤중에 참호에 수류탄 한 발씩 보급을 주면 전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총은 남베트남군에게 노획하여 살아남은 남베트남군을 확인사살하면 된다고 본 것 같다.

오직 바구니에 10발씩의 수류탄만을 끈으로 매달아 온몸에 시커먼 칠을 한 채 팬티바람으로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는 전투의지는 명령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투사적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북베트남은 뜻하지 않은 진내사격으로 무참한 피해와 참패를 맛보았다. 북베트남 특공 대대장은 우리 중대의 이러한 과감한 전투행위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여건은 북베트남에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로 좋았다. 먹는 것도 일류요 엄청난 물자에 무제한의 탄약, 우수한 포와 탱크, 장갑차, 양주와 맥주, 틸틈이 오는 쇼단의 위문에 심지어 더우면 헬기에서 물을 뿌려 샤워를 하는 등 화려한 군대였다. 나는 전투경험을 자랑하는 한국군이 이렇게도 물자가 풍부한 전쟁을 경험한 것을 전투경험이라고 한다면 장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하노이에서 지고 오는 극소수의 포탄과 부족한 실탄, 폭염, 모기, 야생의 벌레들, 폭우, 부족한 식량, 열악한 잠자리, 부상을 치료할 수 없는 의료시설 등 악조건에다 남베트남에 해야 하는 정치전쟁에 이르기까지 가장 악조건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한 신념과 필승의 의지가 있었다. 그들이 수행한 전쟁 방법도 원시시대의 전쟁방법인 죽창, 함정, 올가미 같은 것으로부터 자신들이 현지에서 수거한 C-레이션 깡통으로 만든 수류탄, 마대포, TNT와 대나무 판으로 만든 대전차 지뢰, 각종형태의 부비트랩 등 그들이 창안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되었다. 그들은 합의 하에 전투를 했으므로 전투간 마찰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개인이 최선을 다했을 뿐 항복이나 이탈, 주저는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온 포탄을 보다 전략적인 목표에 쓰지 않고 우리 중대에 많은 양을 사용했다는 데 대하여 얼마나 우리 중대가 그들에게는 악질적인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국군은 용감했다, 그러나 잔인했다라는 것이 하노이 문화원장의 말이었다. 북베트남은 한국군을 무서워했다는 것이다. 나는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용감했다, 잔인했다가 나의 전부로 들렸다.

적어도 한국군은 북베트남처럼 전쟁의 목적과 의지는 없었지만 당시 우리 군대의 간부들 정신 속에는 공산당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과 당시 국가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의 결심에 따르는 정신이 있었고 한국군 상하간의 단결은 베트남전 같은 비정규전에서 능력을 발휘할 만큼 훌륭했다. 더구나 한국군 지휘부가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이나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정서를 감안한 적절한 작전지침은 용병의 시비를 벗

어나게 했고 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미군과는 다른 면을 갖게 한 훌륭한 것이었다.

채명신 사령관은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양민을 해치지 말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 기본 정신은 전투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트남사람을 좋아했는데 이는 우리와 삶의 정서가 같고 같은 유교문명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정감에 이끌리어 노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참 좋은 중대장으로 인식되었고 내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그들은 나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연대에 나의 잔류에 대하여 건의까지 하기도 했다.

6. 전쟁의 승과 패

베트남은 과거 2,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에서 외국의 침략이나 점령에 대하여 100%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나라이다. 전쟁의 정의를 보면 전쟁이란 정치협상의 마지막 단계로써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국을 굴복시키고 자기국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을 통하여 막강한 공군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군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의 국력으로 보아 이 전쟁을 1966년 내에 종결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3,000명의 미군을 파견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했고 다른 나라의 파병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점차 수렁에 빠져들자 20만으로 병력을 늘렸고 1965년 톤킨만사건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철수할 때까지 약 56만명의 미군과 다른 나라가 참전했다. 미국은 막강한 공군

으로 북폭을 하고 그들이 개발한 현대식 무기를 시험이라도 하듯 총동원하여 그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다. 심지어 자연을 파괴하는 고엽제를 뿌려 북베트남의 의지를 꺾으려 했으나 그럴수록 북베트남의 저항은 점점 더해갔다. 전쟁비용으로도 1천5백억 불을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80억불을 투입하여 남베트남군을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건설하여 현상을 유지하거나 승리하려 했으나 결국 미국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파리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9년부터 철수하면서 “1969년부터 시작된 미군의 철수는 베트남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닉슨은 1969년 7월 5일 콰에서 “앞으로 미국은 국지전 개입을 자제하며 자국의 방어는 일차적으로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말들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순리적으로 물러나는 것이고 베트남은 충분히 자위력을 갖추었다고 말함으로써 철수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대외에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 미국이 승리가 가능한데에도 철수한 것은 아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으로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지도 못했고 파리평화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군을 베트남에서 모두 철수시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나라이다. 결국 베트남의 정치전쟁은 미국의 무력전쟁에 이긴 꼴이 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1954년 프랑스에 항복을 받은 후 29년 만에 미국에 승리했고 이어서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중국에 승리함으로써 역사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 1967년 전쟁의 역사를 집필하고 있던 몽고메리 월수는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이미 미국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시 모택동과 김일성은 북베트남에 파병하여 미군과 그리고 북한군은 한국군과 싸우겠다고 여러 번 호찌민에게 요청하였

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영향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었다는 판단 아래 단독으로 이길 것을 결심한 것이다. 김일성은 베트남전이 격화되면서 주한 미군이 베트남으로 빠져 나가면 남침의 기회를 잡으려 했으나 박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시 1개 사단을 파견 하려하자 김신조 일당을 보내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 56함을 동해에서 격침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등 간접적으로 베트남을 응원하였다. 이 결과 박대통령은 1개 사단의 증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군은 국가대 국가로 전쟁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국가 의지를 관철할 것도 없었던 나라이다. 단지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를 논할 수가 없다. 다만 베트남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느냐 실패하였느냐는 쌍방간의 전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양국 간의 정신적 관계가 잠정적으로 승과 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본인이 하노이 학술발표에 갔을 때 베트남 문화원장은 한국군의 참전에 대하여 같은 약소국이었으니 그때의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참전을 안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해를 표시하고 지난 일은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화원장의 이 말은 베트남의 다른 관리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원장의 견해가 그들의 정책으로 된 것 같았다.

전쟁이 끝난 17년만인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했고 지금은 세계 제1의 베트남 투자국으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와 베트남이 미국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인간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에 대한 생각은 베트남과 한국이 원원전략을 구상하면 두 나라는 모두 승전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방으로 진출할 때 베트남을 발판으로 가고 베트남은 북방으로 진출할 때 중국이나 일본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한국을 발판으로 하는 것이 원원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군과 북베트남군이 전과를 놓고 승과 패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전사에는 쌍방간의 인적 피해가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과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진실되지 못한 허수이다. 말하자면 쌍방간의 전과를 보면 살아남은 군인이 없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전과는 과장되는 것이다.

예로 북베트남군은 정선시에서 미군과 교전한 후 그들의 전과를 사살 1만3,500명, 800대의 장갑차파괴, 119문의 포를 노획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미군의 사망자는 282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베트남군이 약 50배로 전과를 과장한 것이 된다.

본인은 매복작전을 통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야말로 북베트남군의 대대장과 고도의 두뇌 싸움이였다. 몰트게는 말했다 “적이 택할 길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나 적은 네 번째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나의 매복에 대한 두뇌는 적을 몇 배는 능가하는 것이였다. 적에게 동조하는 목동을 역이용한 매복, 남베트남군과 합동작전 후 남베트남군내에 있는 적의 동조자를 이용한 매복, 적 지역 수색 후 은밀한 잔류매복, 빈 독립가옥에 은거매복, 목동과 소 떼를 역이용한 매복, 매복지역으로 유도를 위한 포격, 완전 위장과 3일간의 지연매복, 적진 침투매복, 마지막에는 북베트남이 평지로 이동한다는 목동의 진술로 평지매복을 함으로써 북베트남은 길이 모두 막혔다는 것이다.

나에게 직접 생포된 북베트남 장교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 중대 앞의 사격장 하나만 길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통로에서 나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생포지점에서 나를 보자 당장 ‘따위 김 헬기를 불러 나의 부상을 치료해 달라’고 나에게 말했다. 훗날 106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사격장근처 대나무 숲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살아있는 단 하나의 통로를 위하여 나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전한 대부대 작전인 맹호사단 호랑이 작전은 226기지 소탕 작전이었는데 이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다. 우리는 사단에서 내려준 그물망식 투명도를 따라 작전을 했다. 그러

나 작전투명도대로 정글 400m를 뚫고 나가는데 10시간이나 소요되어 이것으로 사실상 탈진상태에 빠졌다. 성실하지 않은 다른 부대는 정글을 뚫고 가지 않고 기존의 통로를 따라 가다가 북베트남이 설치한 부비트랩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많은 부대가 서로 얹혀 통로 상에 1열로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아마 북베트남군이 이 상태에서 집중 사격을 가했다면 아마도 1개 대대는 전멸했을 상황이었다. 이는 실전을 모르는 상급부대 참모가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만 그린 작전계획이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명령이었다.

호랑이 작전이 실시된 1970년에는 이미 북베트남이 한국군의 작전기도를 소상히 알고 있었으므로 1단계작전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헬기 예상 랜딩 지점에 포 사격을 할 때 이미 모든 북베트남은 모든 통로마다 부비트랩을 설치하여 놓고 기지를 떠났고 이 부비트랩에 걸려 한국군의 사망자와 부상자수가 106병원의 수용능력을 넘쳐 버렸다. 그 결과 1단계작전인 1주일 동안 전과는 올리지 못하고 병사들은 이미 탈진이 되어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40개의 동굴을 수색하였으나 옷과 식량 등만 몇 트럭분을 노획했을 뿐 베트남군은 단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우리 중대는 2단계작전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맡고 정글에서 저지대로 내려왔다. 2단계작전의 둘째 날 우리 1개 분대의 매복지점에서 약 150명으로 추산되는 적과 조우하여 결국 적 1명을 사살한 것이 사단의 최초 전과였다. 이것도 기관총 사수가 너무 많은 적에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기관총을 발사하자 북베트남 중대병력은 도망가고 그 중에 하나가 맞아죽은 것이었다. 18일간 계속된 작전에서 우리 중대는 그래도 미군 1개 중대의 배속을 받아 차단임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1명씩 사살한 것이 합계 6명을 사살하고 AK 4정 M-16 1정을 노획하였다.

7. 전쟁의 후일담

일반적으로 전쟁은 국가 간의 차이점에서 일어난다. 국력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념의 차이, 종교의 차이 등, 그러나 인류가 살아가는 원리에서 보면 더구나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점 자체가 인류가 살아가는 가치이다. 국가마다, 사람에게 부여된 여건 속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그 특성대로 극대화하고 이 차이점을 서로 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는 지구의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도 아래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섹스폰이 소리가 강하다고 마구 불어대면 합주공연은 결국 망치게 될 것이다. 모든 악기, 즉 모든 나라가 화음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이다.

베트남전쟁도 만약에 호찌민이 최초로 미 고문관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미국이 호찌민의 손을 잡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적어도 그 뒤에 호찌민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을 만나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 확실한 민족주의자인 호찌민과 결별을 선언했을 때만이라도 미국이 호찌민의 손을 잡았다더라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베트남은 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 협약으로 호찌민이 당연히 베트남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가 넘겨준 호찌민은 공산주의자라는 문서가 문제였다. 이는 호찌민이 독립을 위하여 양복을 빌려 입고 헤이그 회담장을 찾아갔을 때 어느 나라 지도자도 베트남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직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만 관심을 보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투자한 1,500억불이라는 돈은 베트남을 낙원으로 만들고도 남을 돈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지금도 베트남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얼룩무늬 전선을 형성하여 싸우고 있을 것이다.

몇 십 년이 더 걸리더라도 베트남이 이길 때까지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하노이로 진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격할 경우 전선만 넓어진다고 생각하여 포기했다. 미국이 물러간 후 캄보디아 문제로 중공군 20만이 다시 침략했다가 도저히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철수해 버렸다.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베트남에서 겪은 교훈을 잠시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베트남은 영원히 다른 나라의 침략이 불가능해졌다. 핵으로 무력화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핵으로 정글을 다 깔아뭉개면 점령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상대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이므로 전쟁의 의미가 없다. 내가 그렇게 공산당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호찌민이 오직 베트남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베트남의 역사를 알았다면 나는 참전자로서 전투는 열심히 했겠지만 보다 더 이성을 가지고 대민 봉사도 잘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전투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에게는 보다 더 상세히 그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군인은 자기가 참전한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가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전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엔 잠들게 하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야성만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전장은 사람의 잔인성을 불러일으키고 전우들은 이 환경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것이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도 그때 같이 전투한 우리 중대 전우들은 매년 두 번씩 만난다. 지금은 모두 훌륭한 아버지요, 모범적인 사회인이지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당시 전투를 하면서 이성보다는 야성 그리고 난폭성만 있었던 무용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용담이 꽃을 피우는 가운데 중대장인 나는 항상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전투를 할 당시는 무용담이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아픈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립묘지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 병사는

내 품에 안기어 숨을 거둘 때 어머니에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갔다고 전해달라며 갔다고 눈시울을 적신다.

나는 참전전우들과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같이 간 일이 있었다. 버스 한 대에 가득 찬 전우들은 즐거워하며 무용담을 꽃피웠다. 그리고 그 날 저녁 군인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위층에 노래를 부르러 갔을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음을 터트렸다. 오른 손이 없는 전우가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다리가 하나 없는 전우가 춤을 출 때 부인이 부축하는 장면에서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턱이 온전하지 않고 고엽제로 시달리고 이러한 전우들의 모습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한 것이다.

현충일에 국립묘지에 가면 약 30명의 전사자들을 찾아가 참배를 해야 한다. 내가 중대장을 할 때는 단지 적에게 당한 것은 2명이고 한 명은 아군의 오인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음 중대장은 많은 피해를 내어 결국 많은 전사자들의 묘소를 참배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다 찾아 다녀야 하는 이유는 모든 전사자들이 나의 업보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귀국한 후 북베트남 10특공대대장은 그동안 나에게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나를 사살하려고 우리 중대와 마지막 결전을 계획하였다. 그는 매일 밤 내려와서 평소 내가 잘 다니던 히엡이라는 소녀의 집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위장을 한 다음 돌아가는 방법으로 1주일간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는 전 병력을 투입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여자 베트콩을 시켜서 우리 중대를 유인했다. 이 전투로 우리 중대는 적진지 내에서 1개 소대가 거의 전멸하고 연대 병력이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 결과로 후임중대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대대장은 보직 해임되었다.

그 뒤로 생포된 적 대대장의 당변은 그 작전으로 나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했으나 자기 대대장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특진했다는 것이다. 적의 진지내에 유인되어 사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병장은 보내온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무전병이 무전을 치는 순간 적의 총탄에 쓰러졌다. 선임하사도 쓰러졌다. 1분대장은 총을 쏘 생각은 안하고 대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보니 강병장이 목에 총을 맞고 물, 물, 물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계속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다. 순간 나는 고국의 처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나에게 수류탄이 날아와 마구 뛰었는데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죽은척하고 옆드려 있는데 적이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무심코 정녀야 하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머리에 쏜 총탄은 머리에 맞지 않고 어깨를 관통했다.

이때 아군의 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적들이 옷을 다 벗겨감으로써 알몸으로 온몸에 먼지를 쓰고 일어서자 베트남은 자기편인줄 알고 오라고 손짓을 했다. 다시 포탄이 떨어질 때 반대방향으로 뛰다보니 아군의 철모가 보였다.

내가 병원에 있는데 보안대장과 간호장교가 와서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는데 나는 다 죽었어. 텔보중대장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했다. 나는 적진에서 얼룩무늬를 입은 자가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보안대장은 그들은 북한에서 온 특공대야 그들은 너희 중대를 몰살시키고 텔보 중대장인 너희 산적두목을 납치하려 했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말했다 …….”

베트남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몇 가지 메시지를 세계에 던졌다.

- 강대국이 침략을 할 경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라.
- 전쟁은 물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 전쟁은 지도자의 전쟁이다. 지도자가 훌륭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나는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이라는 저서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많은 역사적 관계로 보아 형제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지금 베트남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너무 이윤에 치우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베트남을 위해서는 많은 할애를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베트남의 이 왕조가 망할 때 왕손이 고려에 피난을 와 몽고군과의 전쟁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왕손들은 매년 베트남에 가서 이 왕조의 행사를 한다.

그러니 형제의 나라가 될 요소는 많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 그것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희생된 우리의 전우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보상해야 한다. 죽은 자는 전쟁에서 죽어갔지만 비록 주장이 미약하더라도 산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의에 대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2. 7,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베트남전쟁, 호찌민, 퉁킹만사건, 파리평화협상, 한·베트남 수교

<ABSTRACT>

The Victory and Defeat of the Vietnam War

Kim, Jin-sun

Twenty years after fighting alongside my men with our lives on the line, I, a division commander now, walk the valleys that were once our battlefields. I fall into old memories, recalling the deadly foes that were the Vietcong soldiers, and even finding myself feeling a deep admiration for those warriors. On that note, and not so much to dwell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operations and lessons in the Vietnam War of the late 1960s, I wish to put the victory and defeat of that war again in perspective.

The battle conditions of the US and the ROK Armed Forces were incomparably superior to those of the Vietcong. They had far better food, almost unlimited supplies and ammunitions, the best guns and tanks, imported beverages and occasional visits by show performances, and, when it was too hot, showers from water-spraying helicopters.

In contrast the Vietcong had to wage their war under the worst circumstances insufficient ammunitions and ordinances carried over from Hanoi, maddening heat, mosquitoes and other insects, torrential rains, food shortages, utterly inadequate medic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burden of an ongoing political conflict in South Vietnam. But they had a strong conviction and will for victory.

Believing in the air might of the United States that had prevailed in all previous wars, President Johnson declared that the air force will end the

war by the end of 1966. But the war effort gradually fell into deeper troubles, leading to the increase of deployment to 200,000 men, and until withdrawal 560,000 soldiers composed of men from America and Southwest Asian countries came to fight in the war.

The ROK Army did not go to Vietnam to fight a nation-to-nation war, and the ROK government had little leverage for implementing its national will in the war plans. It is frankly in no position to speak of 'victory' or 'defeat' in the war, for it only entered the war to carry out missions in a restricted capacity.

In 1992, seventeen years after the end of the war, the ROK and Vietnam resumed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 and the ROK now has an intimate economic bond with Vietnam as the largest investor in that country. Therefore rather than debating the victory and loss of the old war, it will serve both nations better to seek a shared victory by investing together in win-win policies in the approaching future.

Key Words: Vietnam War, Ho Chi Minh, <i>Tongkin</i> Bay Incident, Paris Peace Talks, Korea-Vietnam Diplomacy
--